

# 경북도, 베트남서 ‘POST-APEC 세계화 전략’ 첫걸음

APEC 성공개최로 亞 협력 확대  
이철우 도지사, 베트남 공식방문  
태풍피해 성금 전달·북구 격려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을 공식 방문하며 ‘POST-APEC 세계화 전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주 APEC 성공 개최로 높아진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기반으로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첫 해외 행보다. 경북도는 이번 일정을 계기로 교육·청년·산업 분야 국제협력 기반을 동남아로 넓히며 ‘경북 세계화 전략’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

이 도지사는 2일 타이응우옌성을 방문해 켄 수언 쩌엥 당서기에게 태풍 피해 위로 성금을 전달하고 북구 노력에 대한 격려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타이응우옌 외국어대학교에서는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경북도청 전경.

유학설명회’를 열어 경북의 교육 환경과 유학생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협력, APEC을 계기로 확대된 청년 교류의 의미를 강조하며 경북도의 글로벌 인재 육성 전략을 공유한다. 이어 경북 학당과 장학제도 등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이 소개되고, 경북 유학 경험이 있는 베트남 동문의 발표도 이어져 현지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전망이다.

3일에는 박닌성을 방문해 우호교류

재약정서를 체결한다. 이번 재약정은 기존 문화·교육·산업 교류를 기반으로 협력 의제를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 일정도 계속된다. 이 도지사는 현지에 진출한 크레신㈜ 베트남 법인을 방문해 기업 운영 현황을 듣고 경영·생산·고용 상황을 살펴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크레신㈜는 1985년 설립된 국내 음향기기 제조기업으로 2011년 하노이에 공장을 설립해 동남아 생산거점을 구축했다.

또한 현지 자문위원, 베트남 진출 기업인, 한국 대사관 및 문화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POST-APEC 시대 경북의 대아세안 전략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유학생 유치, 청년 교류, 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경북 문화·콘텐츠 수출 방안 등 실질적 협력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순방은 APEC 성공 개최 이후 경북의 대아세안 협력 구상을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첫 단계다. 경북도는 이번 방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동남아와의 경제·교육·문화 협력을 지속 확대해 ‘POST-APEC 세계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APEC을 통해 전 세계가 경북을 주목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책임”이라며 “베트남 속담에 ‘한 그루의 나무로는 산을 이룰 수 없지만 여러 그루가 모이면 높은 산이 된다’는 말처럼 양지역이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해남군

#### 전지훈련 유치 실적평가 ‘장려상’

해남군은 2025년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도내 유일하게 12회 연속 수상이다.

해남군은 16개 전국단위 대회 5만 2000명, 전지훈련 선수단 3만 9000명 등 총 9만 1000명의 스포츠 선수단이 해남을 찾으면서 도내 3번째로 많은 선수단을 유치했다.

2026년부터 생활인구가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해남군의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2025년 1분기동안 해남군은 전남 인구감소 지역 16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76만6330명의 생활인구를 기록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칠곡군

####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

칠곡군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경북 내 군단위 최초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2016년 최초 지정 이후 2021년 재지정에 이어 이번 지정으로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빅키칠곡 7 드림(Dream)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칠곡 여성의 꿈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역량을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주민 참여를 반영한 다양한 여성친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 영주시

#### 50억 규모 축산식품 민간투자

영주시가 축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다. 지역 육가공 전문기업 소백산한돈포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축산 농가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소백산한돈포크㈜(대표 이병익)와 돈육 육가공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소백산한돈포크㈜ 이병익 대표, 경제산업국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협력을 확인했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창원시

#### 시티투어버스 특별노선 운영

창원시는 겨울철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체험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가족 참여형 시티투어버스 특별노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해해양공원 보물찾기 겨울 탐험’을 주제로 마련된 특별 노선은 오후 1시 30분 창원스포르츠파크 만남의광장에서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진해해양공원으로 이동한 뒤 공원을 탐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포항시, ‘철강·금속 DX 실증센터’ 개소

2028년까지 총 220억 투입  
산업 인공지능 전환 본격화

포항시가 지난 28일 포항산업진흥원에서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개소식을 열고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미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 문을 연 실증센터는 2028년까지 총 220억원(국비 140억, 도비 18억, 시비 42억 등)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 철강·금속 제조기업이 디지털 기반 생산혁신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항시는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산업 인공지능(AI)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실증·평가·확산’ 단계별 비전에 따라 지역 산업 전반에 AI·스마트 제조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산

할 방침이다.

실증센터는 ▲AI 데이터 분석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검증 ▲스마트 센서·제조 자동화 기술을 연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정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품질 편차, 불량률, 에너지 사용량 등 기존 제조공정의 비효율을 디지털 기술로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다.

포항시는 그동안 DX 실증 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공정 효율화 등 성과를 입증해 온 기업 사례가 축적된 만큼, 향후 기술 확산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는 매년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최적화 실증 테스트를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별 표준공정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기술 수준에 따라 입문형·확장형·고도형 단계별 DX 모델을 적용해 수요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울릉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

주택보급률 100% 달성 목표

울릉군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택보급률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울릉은 지리적 특성과 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어려워 청년 유출과 정주여건 악화가 지속돼 왔다. 이에 군은 ‘지속가능 울릉살터 건립사업’과 ‘섬청년 보금자리 사업’을 선도 모델로 삼아 향후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 정착 기반 강화 ▲지역 주민 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정주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며,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핵심 전략



울릉살터 전경.

/울릉군

으로 추진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주택 문제 해결은 울릉군민의 가장 큰 숙원 중 하나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울릉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청년과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경북)=박병률 기자 pbr34@

## 경주 황리단길, ‘韓 관광의 별’ 선정

대통령·동궁과 월지 이어 두 번째

경주시 대표 관광지 황리단길이 ‘2025 한국 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 분야에 최종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2023년 대통령과 동궁과 월지 선정에 이어 동일 지자체가 같은 분야에서 두 번째 수상한 전국 최초 사례로, 경주의 문화·관광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다.

황리단길은 신라 천년 역사문화권의 길과 골목을 현대 감성으로 재해석한 복합 관광 공간으로, 문화유산 기반

스토리텔링, 로컬 브랜드 성장, 보행친화적 공간 설계 등이 조화를 이루며 MZ세대가 선호하는 여행지이자 국내 관광객 재방문율이 높은 명소로 자리잡았다. 특히 카페와 체험형 매장 등 지역 상권의 자생적 콘텐츠가 SNS를 통해 확산되며 야간관광까지 활성화돼 ‘머무는 관광지’로 성장했다.

‘한국 관광의 별’은 관광 산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지와 콘텐츠 등을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국내 대표 관광평가가 제도다. 선정 기준은 ▲방문객 만족도 ▲관광 서비스 품질 ▲지속가능성 ▲발견기여도 등이며, 수상지는 매년 국가관광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 하동군, LNG 복합발전소 유치 성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종심의 통과

하동군은 폐쇄될 하동화력발전소 2·3호기 대체 시설로 추진한 LNG 복합발전소가 지난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애초 대송산업단지를 LNG 복합발전소 부지로 확보하려 했으나,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보류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국남부발전이 수도권 입지를 검토하자 하동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건립 지점을 전원개발구역인 하동화력본부 내부로 재조정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부군수 주도 화력 폐쇄 대응 TF팀 가동, 서천호 의원 지원 요청,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공동 대응, 석탄발전소 폐지 영향 분석 용역 발주, 도 단위 워킹 그룹 참여, 주민대상 설명회, 산업부 직접 방문 등 다각도로 노력했다.

군은 LNG 복합발전소 유치로 대형 국책 사업 효과, 고용 창출 및 인구 증가, 건설·운영 33년간 936억원 지원금 등 상당한 경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